



## 다시 다니고 싶은 대학

차 미래 | 세계일보 논설위원

평생 소원인 보스턴 마라톤 출전의 꿈을 이룬 중년의 아마추어들을 응원하러 얼마 전 보스턴에 간 김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 중인 언론인 친구를 만났다.

“우리 나이에 공부한다고 강의실에 왔다갔다하는 게 잘 되니?”

“알다시피 나는 모범생이잖아.  
빠짐없이 꼬박꼬박 강의에 나가  
가고 필기까지 다 하진 못  
해도 열심히 교수 얼굴  
을 노려보며 끝까지 잘  
앉아 있지. 배우는 것  
도 많고 즐겁게 지  
내.”

그는 정말 잘 하고 있었다. 다른 연수자들이 흔히 하듯 강의보다 여행이 나 다른 사교 활동에 몰두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한국에서 신문사에 근무할 때보다 젊음과 활기에 넘치고 50대가 아니라 30대 초의 늦깎이 대학생처럼 보였다. 중·고교와 대학, 최초 근무하던 신문사까지 동창인 그는 정말 언제나 모범생이었다. 대학에서도 착실히 좋은 학점을 따고 같은 과 대학원까지 나왔다.

나는 공부 안하고 딴 책만 읽고, 전공은 뒷전이고 4년간 연극만 열심히 했다. 학점도 별로 좋지 않고, 언제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 같은 거대 담론의 글이나 쓰면서 환상 속에서 살았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던 70년대에 붙어닥친 제 2차 세계 오일쇼크와 불황 덕분에 취업난이 극심했다. 여자도 시험을 쳐서 당당히 공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곤 언론사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문기자가 되었다.

그러나 언론계 생활 30년을 바라보는 지금 것처럼 서로 달랐던 두 친구는 모두 대학 시절을 그리워하고, 보다 나은 재충전의 기회를 갈구하고 있다. 나 역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왜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그만두는 것일까. 그리고 왜 먼 훗날 다시 그때를 아쉬워하며 ‘대학물을 먹을’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것일까.

“한국인들이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것 대학 전공이

“

뒤집어 말하면 대부분의 대학 교육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의 길로 나가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겐 방해나 될 뿐이라는  
극단론도 나올 수 있다.

”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배운 일반적 상식이다.”

“기자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 없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것을 아는 것과 같다.”

“인간은 자신이 받은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30년 가까이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나 자신이 후배나 부원들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다.

첫째 얘기는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선 기자 세계의 현장 역시 전공과 무관한 '상식'의 경쟁판이기 때문에 선불리 전공에 얽매었다 보면 현장에서 뒤쳐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심도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폭넓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에 다 연마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친분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 집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잘하는 기자가 이긴다.

세 번째는 기자직 자체가 사람들과 끝없이 부대끼면서 해 나가는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남들의 입장과 생각을 정확히 이해해야 공정한 기사를 쓸 수 있다. 그러려면 자신이 받은 교육의 한계 - 자신의 사고, 경험, 편향의 한계를 언제나 잊지 않고 판단에 가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어디에나 다 해당되는 진리는 아니다.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거나 대학 졸업

과 관계없이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한국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부닥칠 수 있는 문제다. 뒤집어 말하면 대부분의 대학 교육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의 길로 나가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겐 방해나 될 뿐이라는 극단론도 나올 수 있다. “대학 간판을 따라 대학에 간다”든가 “전공은 타이틀 뿐”이란 얘기가 그것들이다.

서울대만 해도 내가 입학하던 '68년도엔 전인적 학문의 바탕, 교양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는 교양과 정부라는 것이 신설돼 문리대, 법대, 상대 학생들이 모두 공릉동 당시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1학년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취업 등 실용적인 교육과 전인적인 학문인의 양성 사이에서 번복을 계속하던 입시 제도와 학사 운영은 최근 다시 취업 시장의 수요, 학생들의 선호도 위주로 개편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대학이 취업 대비 훈련 기관이 되는 것에는 반대다.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으로 1. 입시 지옥에서의 해방감 2.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성적순으로 배정된 전공에 대한 부적응 탓이지만, 그런 대학 생활에서도 얻는 것이 상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 역시 상당 부분 고교 성적에 의해 진학할 학과가 정해졌고, 전공 공부를 별로 안한 채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선택한 것 (연극회 활동,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열심히

히 파고드는 기본 태세, 나한테 부과된 임무는 일단 철저히 해내야 간판이 부끄럽지 않다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다. 문화부 기자로, 프리랜서로, TV 외화 번역자로 일하면서 나를 지탱해 준 가장 큰 요소는 그것이었고 언제나 부족했던 전공 실력과 전문지식은 남의 것을 취재해서 보충했다.

특히 '96년 일간지 문화부장이면서 서울대 50주년 기념 연극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출연했을 때, 나는 대학에서의 취미 집단이 연극계의 방대한 전문 집단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았다. 출연진과 스태프 수십 명중 연출가, 배우, 극작가, 연극학과 교수들 대다수는 전공과 전혀 관계없이 연극계에 진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서울대에는 연극학과가 없다).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좋다. 그렇다면 나도 새로운 지식과 경험, 새로운 사람을 접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치자. 그럼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한

셈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자위해 보아도 역시 대학 시절부터 언론 쪽에 뜻을 두었던 것이 기자 일을 보다 잘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든가, 그 당시 좀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좋았을 거라는 회한은 쉽게 가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다시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

#### 차미래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대중의 문화해독력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및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출판저널 편집주간, 문화일보 문화부장, 세계일보 문화부장(편집부국장)을 거쳐 세계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미술 에세이'와 '강철군화', '끝나지 않은 노래(빅톨 하라전기)', '우리 시대의 테러리즘', '예술과 환영', 등 다수의 역사가 있으며, '두 얼굴의 사나이', '스타스키와 허치', '남과 북' 등 많은 외화의 번역을 맡아 한 바 있다.

